

학자들 경전운동 '열기'

현직 교수·강사들이 참여해 <구사론> <석보상절> <화엄경> 등 주요 경전과 선적을 강독·연구하는 운동의 활동이 활발하다.

△구사론운동회 △석보상절운동회 △동양사상연구회 △해심밀경운동회 △중론운동회 △금강경운동회 등 전국 18개 운동회는 강독 뿐만 아니라 경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단행본·논문 등의 자료로도 적극 활용하는 등 사회적 성격까지 지니고 있어 경전 연구 뿐만 아니라 경전의 현대화·대중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은경희교수(서울고대 철학과) 등 8명의 철학박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구사론운동회는 매주 <아비달마구사론> 강독·연구를 통해 부파불교 논자들의 주요 쟁점과 아비달마 철학의 사상적 배경을 살피고 있다. 은교수가 지난 91년 운동회의 성과물로 내놓은 <대승기신론소·별기>는 지금까지도 대중적인 원호스님 연구서로 각광받고 있어 운동회 성과물의 학술적 가치를 잘 보여준다.

정진원박사(홍대 국문학) 등 현직 교수·강사·법사 등이 참여하는 석보상절운동회는 운동회의 토론 내용을 '유니텔' '약수법보' '삼관관대 불교동호회' 등에 게재하고 있으며, <석보상절>의 고어(古語)를 모아 <석보상절 고어사전>(가칭)의 발간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정박사는 "15·6세기의 국어자료는 대부분 불교관련 자료"라며 "언해본 경전의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15세기 언해문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고려시대의 각종 문집, <조선왕조실록>,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을 토대로 <한국불교관계자료집>(가칭) 발간을 준비하고 있는 한국불교자료운동회(김윤교수, 영남대), 화엄(華嚴)·선(禪) 사상으로 인간의 병적 심리의 치유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화엄사상연구



◇중앙승가대 불전국역원에서 <석보상절>을 운동하고 있는 '석보상절운동회.'

모인(정방지교수, 대구효성가톨릭대) 등이 주목할 만한 운동회, <사집> <팔십화엄경(八十華嚴經)> 등을 공부하는 화엄사상연구모임은 스티븐 오딘(S.Odin)의 저서인 <과정형이상학과 화엄불교>도 공동 역주(譯註)하고 있다. 선불교의 가르침에서 21세기의 학문 방법과 인식론을 모색하고 있기 위해 <선문활요(禪門撮要)>를 강독하고 있는 동양사외사상연구회(이영찬교수, 계명대)도 운동회 토의 내용의 전산화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경전운동회'를 운영하고 있는 류승무교수(중앙승가대 사회학과)는 "경전의 운동은 경전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이며 현실에 부합한 언어로 번역하고 재해석함으로써 경전의 새로운 이해를 시도하는 가치있는 작업"이라며 "운동회의 성과가 출판되면 불학(佛學)의 객관화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경전을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종욱 기자

4와 경전



대품반야경



혜담
각회사 주지

불법문중에 출가한 사람이란 누구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나 역시 출가 후에 가장 먼저 접하고 외운 경전이 반야심경이다. 그러나 조석에 불 때마다 독송하던 그 <반야심경>의 내용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그 가운데서 공(空)이라는 말은 끊임이 나를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강원에서 경전을 공부하고 동국대학교에서 불교학을 공부하면서도 공은 언제나 머리 한 구석에 박혀 있었다. 마침내 공은 나로 하여금 대학을 졸업하던 그 이른날 선원으로 내몰았다. 참선을 하면 공을 알 수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원에서의 공부가 부족해서인지 그때로부터 십여년의 세월이 흘러서도 출가한 당시와 별 차이없이 공은 아직도 멀리만 있었다. 그렇다고 그것을 문자식으로나마 속시원히 해줄 우리말 해설서가 국내에 있었는가 하면 그렇지도 못했다. 그래서 공을 중심으로 한 반야사상을 연구하기 위하여 결심한 것이 일본 유학일이었고,

되고 있다. 대승불교는 소승교단이 부처님의 근본정신을 망각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소승교단을 이기고 있는 여러 모순을 지적하면서 '부처님의 근본정신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새로운 불교운동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불교운동을 이끈 사상이 바로 <반야경>이다. 즉 대승불교의 사상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근본사상을 이어받아 사상적으로 부단히 발전해 왔는데, 이러한 불교의 새로운 사상이 태동될 때마다 새로운 경전의 성립은 불가피했고, 이때 새롭게 성립된 경전은 그때마다 <반야경>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다시 한번 <반야경>의 모든 계통을 살펴보면, 먼저 <원시반야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전이 성립되어 유포되고, 이것이 중국에 전래되면 그때마다 거기에 상당한 경전으로 번역된다. 이어서 기존의 <원시반야경>을 모태로 하여 다른 새로운 사상을 첨가한 <반야경>이 다시 성

공사상등 대승불교 2만5천송 정리

'부처님 근본정신으로 돌아가자' 핵심

거기서 만난 경전이 <대품반야경(大品般若經)>이다. 벌써 십수년간의 일이었고, 그 후 귀국하여 지금까지 <대품반야경>을 번역하고 본 경전을 중심으로 한 반야불교신행본을 집필하는 등 그대로 대품반야경은 나의 수행과 포교에 있어 유일무이한 경전이 되고 있다.

사실 우리들은 한 마디로 <반야경>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왜냐하면 <반야경>이란 단일경전이 아니고 동일계통에 속하는 다수경전의 총칭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적은 것이 아니라 현존 대승경전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방대한 양이 <반야경>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때문에 학자들은 이러한 다수의 반야경전류를 편 의상 <대부반야경전(大部般若經典)>과 <잡부반야경전(雜部般若經典)>으로 나누고, 대부반야경전류를 다시 대반야경계(大般若經系)와 대품계(大品系) 혹은 방광계(放光系) 그리고 소품계(小品系) 혹은 도행계(道行系)의 셋으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 불교에서 널리 수지·독송되고 있는 <금강경>이나 <반야심경>은 <잡부반야경전>으로 분류되는 반면, 지금 논하고 있는 <대품반야경>은 대품계의 대표적인 경전으로 취급

되고 있다. 다른 이름으로 중국에서 번역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경전의 제작과 유포 및 번역이 반복되는 사이에 어느덧 경전의 종류는 늘어났지만, 그때까지 형성된 모든 반야사상을 가장 완벽하게 담은 <반야경>의 출현 또한 당연한 결과였다. 이렇게 사상적인 발전이 일단 멈춘 상태에서 그때까지의 반야경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상을 총망라하여 정리된 경전이 <이만오천송반야경>이고, 이것을 번역한 것이 바로 <대품반야경>이다.

그러나 대품반야경이 대승불교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경이 설하고 있는 공사상(空思想)이 대승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학(敎學)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대승불교의 사상을 전부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원시반야경>에서부터 설해진 반야바라밀·불모사상(不母思想)·공(空)·무백성(無自性)·보살마하살·육바라밀·대승·화타행(和同行)·제가적(在家的)성격·경전의 독송 및 타인을 위해서 살하는 공덕·반야바라밀 염송의 공덕·경전공양의 공덕·삼미(三昧)·회향(迴向) 등에 관해서 그 내용을 완성하고 있다.

간화선 疑情 3요소

'선지식·참구·화두'

월호스님 '...의정돈발법' 발표

참선에 쏟는 대중들의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월호스님(쌍계사 중강)이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참선법인 간화선(看話禪)에서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필수 요소와 증득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논문 '화두 참구에 있어서 의정돈발법(疑情頓發法)'을 발표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월호스님은 "간화선은 의정(疑情)이 일어나야 깨달음을 증득할 수 있다"며 "수행자가 신(信)이 서는 스승을 만나고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화두를 끊임없이 의심·부정할 때 의정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해 의정을 일으킬 수 있는 실제적인 요소로 선지식, 참구, 화두를 들었다.

'의정돈발법'이란 의정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요인. 오공스님(1238~1295)의 <선요(禪要)>에서 스승의 면모를 찾은 월호스님은 "참다운 선지식이란 의정을 촉발시켜 주는 화두로써 지도하여 수시로 점검을 해줄 수 있어야 한

다"고 말했다.

또 "간화선은 깨달음을 기다리는 대오선(待悟禪)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는 것"이라고 말한 월호스님은 "깨침을 증시한다고 해서 깨달음 지상주의나 알음알이 분별심에 빠져서도 안 된다"며 "처음부터 '어째서 무(無)라고 했을까!' 하는 식으로 의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참구를 지적했다. 스님은 "화두를 들 때 '머리'보다는 배꼽 밑에 두고 관(觀)하라"고 권했다. 배로 참구한다는 것은 호흡에 따라서 배가 나오고 들어감을 관찰하면서 화두를 참구하는 것이다.

월호스님은 "수행상의 실제적 방법의 논의가 활발해지고 문자로 공유되어야 후배들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속

학술단신

18일 사명당학술회의

사명당기념사업회(회장 박권회)는 18일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사명당 연구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사명당의 생애·사상·문학·의병활동 등을 조망할 이번 학술회의에는 정병조교수(동국대 부총장)가 '사명당의 사상과 그 불교적 위치' 이창희교수(성균관대 사학과)가 '입진왜란 중 승병군 활동에

대하여-서산대사와 사명대사의 의병활동을 중심으로' 김영작교수(국민대 정치외교학과)가 '사명당의 일본에 활동에 대하여' 김중철교수(아주대 국문학)가 '사명당의 문학세계' 등을 발표하고 이우성씨(민족문화추진회)가 '동아대'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인간성회복...' 세미나

한국여성불교연합회(회장 묘주)는 26일 조계사 문화회관에

서 '인간성 회복을 위한 의식변화'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갖는다.

이 세미나에는 유세원교수(인천전문대 정치학과)가 '현대 산업사회에서의 도덕성 윤리성 제문제' 박형태교수(숙명여대 불문학과)가 '생명의 질, 향상을 위한 의식변화' 등을 발표하고 운영자교수(한국방송대 경제학과) 김중찬씨(불교신문 전 편집국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전국 18개 운동회
경전 현대적 해석
토의내용 전산화
단행본·논문 등 발표

부디피아 사이버 기행
금강경 사이트

경전 가운데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금강 반야바라밀경>(이하 '금강경')의 영문·범어(梵語)본을 읽을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

'금강경 사이트'(Diamond Sutra)는 <금강경>의 영문·범어본 뿐만 아니라 이 경전이 5조 총인대사 이래로 불교의 주요 경전으로 떠오른 배경, 의미 등도 분석·제공한다.

이 사이트는 6조 혜능(慧能)이 어느날 <금강경>을 읽다가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其心)'이라는 대목에서 홀연히 깨달았다는 선일화(禪逸話)도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

이외에도 범어(梵英) 불경어휘 전자사전도 제공한다. 알파벳으로 구분된 이 전자사전에는 범어를 한문으로 음역하고 영어로 뜻을 설명한 1천여개의 한어 낱말이 있다. <금강경> 본문 중에서 범어 낱말은 전자사전과 링크(연결)되어 있어 <금강경>을 읽으면서 범어의 정확한 의미도 알 수 있다.

<http://nhuru.net/tkarc/9606/sources/diamond.htm>

1997년 3월 4일 화요일 **주간불교**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대구 여래한방병원 시연 스님

오랜세월 불치병 치료에 전념해 온 시연스님은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을 현대화된 의약품으로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허출원자인 시연스님은 "불로화정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위장질환의 치료에 효과가 탁월하다"고 그 효능을 설명했다.

현재 국내 감식초음료 시장이 2백50억원대의 규모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점을 감안하면 사업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상업적 주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불로화정의 판매 수익금은 경주시내 99평 대지에 건립될 5층규모의 한방병원 설립에 쓰인다. 또 한방병원 건립에는 무료예식장과 탁아소도 만든다는 것이 스님의 계획이다.

不老化精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계)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서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밤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퍼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특별가격 : 정가 50만원
대구은행 033-07-172508
(예금주 : 김 창 수)

如來健康院 合掌
電話 : (053)655-2227

범보신문 제409호 1997년 3월 5일 수요일

여래한방원 시연스님 '불로화정' 특허 출원

대구에서 여래한방원을 운영하며 병고에 시달리는 불자들을 돌봐오던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계)와 감식초 외에 10여가지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화제이다. 스님은 "불로화정"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서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위장 질환과 암을 억제하며 노인성 질환을 예방, 치유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사미놀' 성분을 대량으로 뽑아내 산업화할 수 있는 기술이 국내연구진에 의해 세계최초로 개발됐다.

농진청정 작물시험장(장장 김운선)은 4일 '참기름과 부산물인 깻묵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큰 천연물질 세사미놀 성분을 대량 추출, 분리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됨으로써 노화방지제와 암예방 의약품, 피부노화억제용 화장품 등을 제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세사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 물질로 지금까지 개발된 천연물질 가운데 가장 뛰어난 항산화제로 평가받은 '알파 토코페롤'보다도 산화억제능력이 15~20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진청 작물시험장 류수호 박사는 이 세사미놀성분으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있는 음료와 알약 등의 시제품을 이미 만들었으며, 내년 중에는 특허공매를 통한 산업화가 이뤄져 오는 98년말쯤 관련제품의 시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1997년 2월 29일 **식품뉴스**

감식초음료 급성장세